

옷의 힘

—— 세계를 좋은 방향으로 바꿔나간다 ——

특집 난민을 지원하는 것



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지원

짐보파리도 챙기지 못하고 조국을 탈출합니다. 수백 킬로를 걷고 또 걸어서, 때로는 험난한 바다를 건너 낯선 땅으로 몸을 피하는 난민들. 지금 세계 각지에서 수천만 명의 난민이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식료품, 물, 생활 공간, 의료, 교육, 일 ...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은 늘 부족하고, 그들은 이러한 것들이 시급합니다. 유니클로가 만들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옷들도 추위와 더위, 위생을 지키고, 나아가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것 중 하나입니다. 의류 지원, 이를 넘어선 자립 지원, 고객의 협력을 얻어 유니클로가 이제까지 해온 것, 그리고 앞으로 해 나갈 것들을 소개합니다.

세계를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 나간다

옷의 힘

15

표지 사진 : 그리스 레소보스섬에 도착한 시리아 난민들
© UNHCR / A. McConnell

난민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력 분쟁 등을 피해 국경을 넘어오는 난민들. 그들에게는 다양한 배경이 있습니다. 인종과 종교, 정치적 신조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는 난민도 있습니다. 어른, 아이, 그리고 병약자도 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UNHCR)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유엔 난민 기구(UNHCR) 1950년에 설립된 유엔 난민 지원기구로 난민, 피난민 등을 국제적으로 보호, 지원하며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다.



시리아 난민 | 지한 / 34세

‘아이에게 교육을’ 전해지지 않는 엄마의 바람

지한은 집안일을 할 때도 장을 보러 갈 때도 7살 난 장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눈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시리아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지한 일가. 8시간 걸리는 터키를 향해 피난길에 오른 그들은 45시간이나 배에 시달리다 그리스에 도착했습니다.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위험한 탈출이었지만,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시리아에 살 때, 지한은 공무원으로 일하고, 남편인 아시라프는 대학에서 근무했습니다. 부부는 아이들의 교육에 열성적이었습니다. 난민이 된 지금, 지한은 자신의 왼쪽 눈이 실명의 위기에 있으면서도 아이들의 교육을 무엇보다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누군가가 이해해 주지 않을까 싶어 여기까지 도피해 왔지만, 그런 사람은 아주 소수였다’고 슬픈 눈으로 그녀는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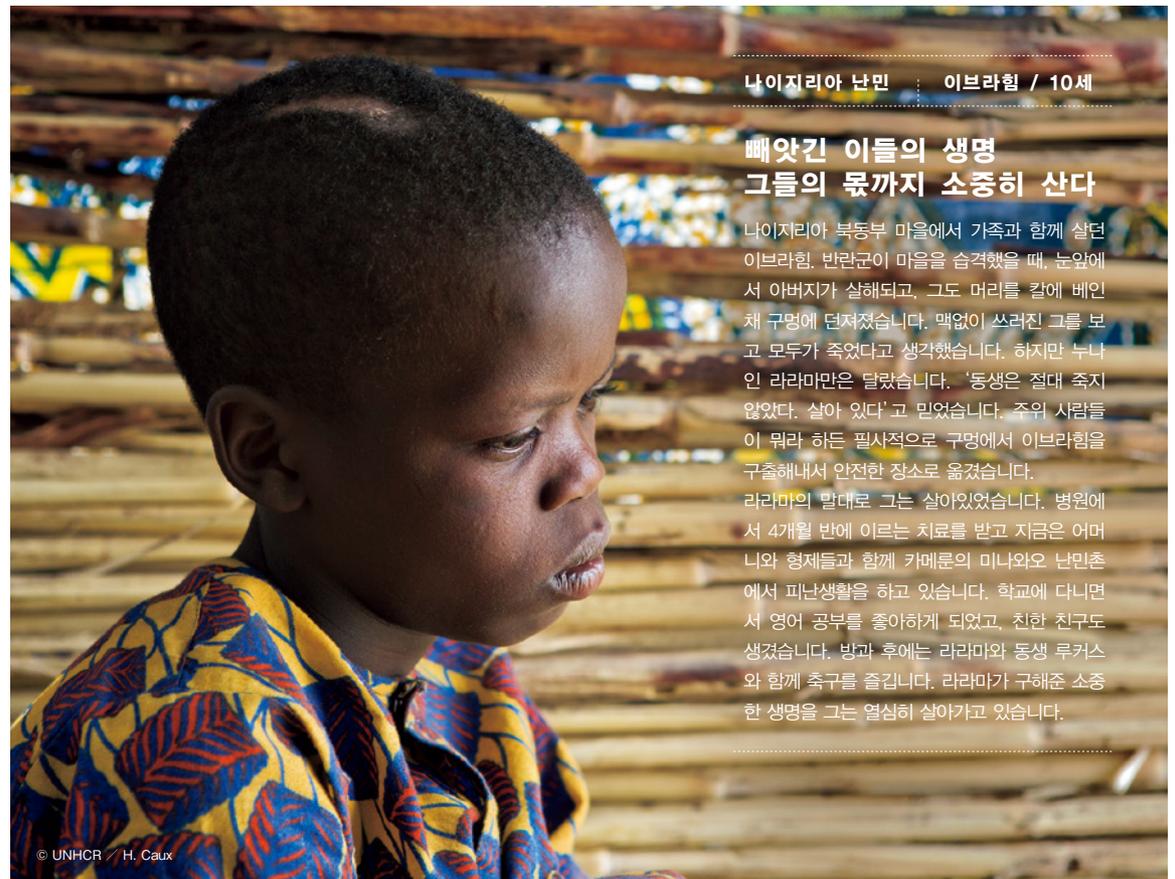
© UNHCR / A. D'Amato

시리아 난민 | 모하메드 / 9살

길고 힘든 나날 끝에 당도한, 새하얀 미래

모하메드는 가족과 함께 시리아에서 이집트로 피난해 왔습니다. 생활은 어려웠지만 당시의 그는 동네 아이들과 어울려 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정세 악화로 난민에 대한 반감이 드세지자 모하메드는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학교는 물론 밖에 나가기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걱정한 아버지가 이탈리아행 밀항선에 태웠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트라우마를 안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온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이들의 괴롭힘이었습니다. 스웨덴으로의 이주 허가가 떨어지고 진정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1월, 그는 남서부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공포에 떠는 일 없이 밖에 나갈 수 있게 되었고 처음으로 눈싸움을 체험했습니다. 약 2년 만에 다시 학교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는 앞으로 시작되는 모든 것이 도전이자 기회이기도 합니다.

© UNHCR / S. Baldwin



나이지리아 난민 | 이브라힘 / 10세

빼앗긴 이들의 생명 그들의 뒤통까지 소중히 산다

나이지리아 북동부 마을에서 가족과 함께 살던 이브라힘. 반란군이 마을을 습격했을 때, 눈앞에서 아버지가 살해되고, 그도 머리를 칼에 베인 채 구렁에 던져졌습니다. 맥없이 쓰러진 그를 보고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누나인 라라마만은 달랐습니다. ‘동생은 절대 죽지 않았다. 살아 있다’고 믿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뭐라 하든 필사적으로 구렁에서 이브라힘을 구출해내서 안전한 장소로 옮겼습니다. 라라마의 말대로 그는 살아있었습니다. 병원에서 4개월 반에 이르는 치료를 받고 지금은 어머니와 형제들과 함께 카메룬의 미나와오 난민촌에서 피난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영어 공부를 좋아하게 되었고, 친한 친구도 생겼습니다. 방과 후에는 라라마와 동생 루카스와 함께 축구를 즐깁니다. 라라마가 구해준 소중한 생명을 그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 UNHCR / H. Caux

의류 회사이기에 할 수 있는 것

유니클로가 긍지와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난민을 알고, 난민에게 전달하고, 난민과 함께 사는 것.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것.
 그 첫걸음은, 유니클로의 옷을 전달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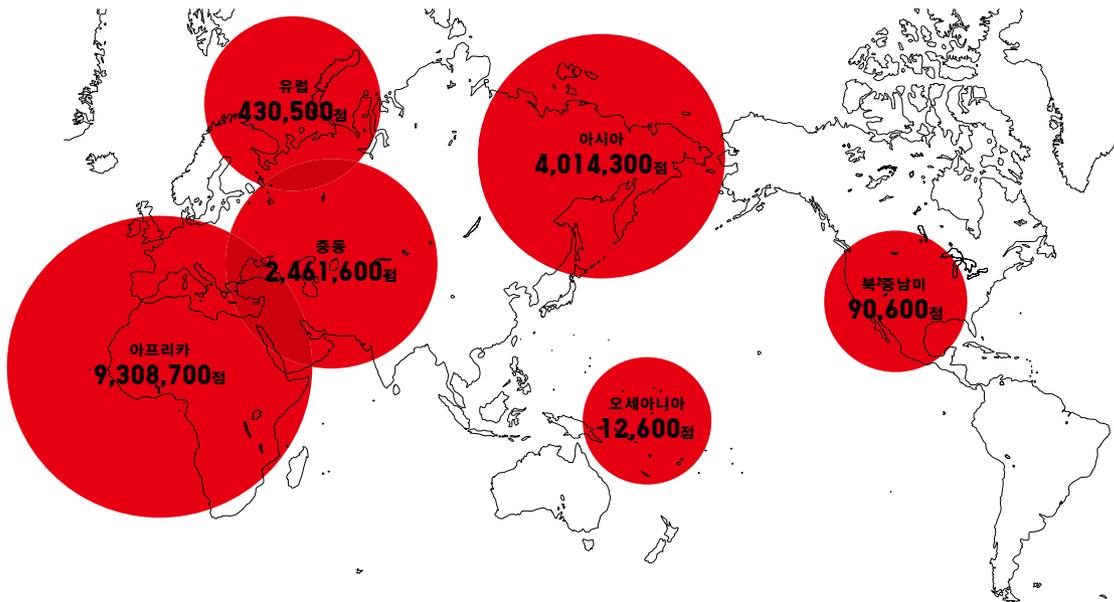
UNIQLO ACTIVITY 1

2006년~

**‘전 상품 리사이클 활동’
 옷을 전달하는 것**

고객의 옷장에 잠자고 있는 옷들을 유니클로와 지류 점포에서 회수해, 난민을 비롯해 옷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 유니클로 후리스 리사이클을 시작해, 2006년에는 회수 대상을 전 상품으로 확대. 2010년에는 자유에서도 활동을 개시해, 회수 거점이 16개 나라와 지역의 전 점포로 확대되었습니다. (2015년 11월 현재)회수한 옷 중, 더 이상 입을 수 없 옷(약 10%)은 연료로써 재활용하고, 아직 입을 수 있는 옷(약 90%)은 필요한 수량과 종류, 보낼 수 있는 루트를 확인해 난민 등에게 기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업원들도 난민촌 등 현지에 가서 기증한 옷의 배부 상황을 확인하고, 난민들의 생활과 옷에 대한 요망에 관해서 직접 의견을 듣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59개 나라와 지역에서 약 1,632만 점의 옷을 제공했습니다(2015년 8월 말 현재).

‘전 상품 리사이클 활동’의 지역별 기증 수량



1,632 만 점

2015년 8월 말 현재

UNIQLO ACTIVITY 2

2011년~

**‘난민 인턴십’으로
 함께 일하는 것**

유니클로는 일본에서 난민인정을 받아 정주가 허용된 난민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취업 체험의 장을 제공해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6개월간 점포에서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며, 희망자에게는 점포 스태프로써 본채용의 길도 열어줍니다. 2015년 11월 현재, 인턴, 정사원 등 다양한 고용형태로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니클로는 난민에 대해 특별한 존재가 아닌 함께 일하는 동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업원들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개성을 살려, 희망을 가지고 활약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진은 미얀마 출신의 타라보 씨. 처음에는 일본어나 업무 내용에 불안한 부분도 있었지만, 점장이나 주위 스태프들이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인턴십을 거쳐 현재는 정사원으로 일하고 있다.

UNIQLO ACTIVITY 3

2013년~

**‘“전달하자, 옷의 힘” 프로젝트’
 알고, 배우고, 체험하는 것**

아이들이 난민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기관과 협업한 프로젝트를 일본 각지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유니클로 종업원이 강사가 되어 출장 수업 활동을 개시. 2013년부터는 본격화된 전사 프로젝트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수업에서는 우선, 난민들의 피난생활과 옷의 역할에 대해 배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 옷 회수 활동을 체험. 학습의 마무리로 유니클로가 난민촌을 방문해 옷을 기증하는 모습을 담은 포토 레포트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238교에서 실시해 약 26,000명이 참가했으며, 한국에서도 2016년부터 본격적인 출장 수업 활동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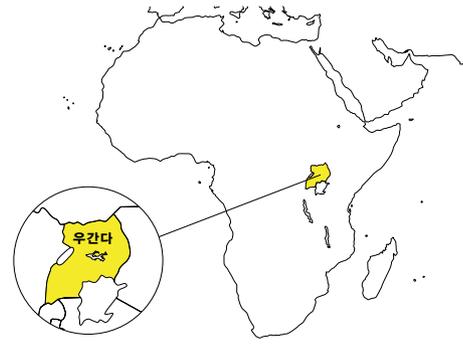


국내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프로젝트에 참가할 수 있으며, 학교의 교사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의류 지원’ 최신 리포트: 우간다 공화국으로

유엔 난민 기구(UHCR)가 ‘3대 긴급지원 대상’으로 정한 남수단공화국으로부터의 난민 유입 등으로, 우간다가 받아들인 난민은 약 50만 명.

10월 초순, 우리가 보낸 옷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유니클로는 우간다를 방문했습니다.



5개의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우간다. 남수단이나 콩고공화국 등, 근린 국가로부터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는 난민이 총 50만 명에 이릅니다. 과거 우간다도 난민을 유출시켰던 때가 있어, 그러한 경험에 바탕을 둔 난민 지원이 정부 주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곳은 키리안동고 난민 거주구. 이곳에 사는 난민들의 대부분은 내전으로 황폐해진 남수단에서 피난해 온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난민촌은 지역 주민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부지에 울타리가 쳐지고 이동도 제한되지만 이곳은 울타리도 없고 난민도 지역주민들과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습니다. 학교나 병원 등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많은 난민촌을 방문했지만, 이렇게까지 지역과 잘 공존하고 있는 곳은 매우 드문 사례

입니다. 그 배경에는 원래 살고 있었던 지역주민들과 난민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남수단 출신자들이 종교와 언어에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나무들이 우거진 적토의 대지를 누군가가 규제받지 않고 오가는 모습에 목가적인 인상을 받았습니

다. 첫 번째로 인터뷰한 로움 씨 일가(아래 사진). 유니클로의 옷을 가족 모두가 입고 보여주었습니다. 수단(현재의 남수단)에서 내전이 발발했을 때, 가장 가까운 나라를 향해 걸어서 피난해 왔습니다. 집도 일도, 모든 것을 다 잃은 가족은 UNHCR로부터 토지와 자재를 제공받아 스스로 집을 짓고 밭을 일구어 시장에서 채소를 팔아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으면 생명의 위협은 없지만, 이 피난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초조한 마음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로



움 씨가 무엇보다도 바라는 것은, 자립해서 조금이라도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는 것. 피난생활로 피폐해져 가고 있을 때, 유니클로에서 옷을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겨우겨우 먹고 사는 형편이라 옷을 살 여유가 없어요. 하지만 아침저녁은 춥고, 아이들에게도 제대로 옷을 입혀주고 싶었지요. 그래서 유니클로가 옷을 준다고 들었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15살의 아크웨로 양(아래 사진)도 유니클로 옷을 멋지게 입고 있었습니다. 남수단에서 피난 와서 동생들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중학교 학비라고 합니다. UNHCR의 지원으로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있지만, 부모가 없는 그녀는 학비를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얘기가 나오자 떨리는 입술로 마음을 달고 마는 아크웨로. 하지만 간호사

나 화가가 되고 싶다는 장래의 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노란색 폴로셔츠가 잘 어울리는 밝은 표정. 그런 그녀에게 카메라를 돌리자 수줍은 듯 미소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난민들. 우리가 보낸 옷들은 그들에게 분명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받은 옷을 곧바로 갈아입고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해주는 사람, 옷을 받고 좋아하는 아이들, ‘옷 덕분에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다’고 환하게 웃으며 말하는 엄마. 그런 모습을 보며, 활동의 의미를 실감하는 반면, 희망하는 사이즈를 받지 못했다, 아이들 옷이 부족하다, 등등 개선점이 아직도 많음을 알았습니다. 현지에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 일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고, 이를 다음 활동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제 꿈은 조국 미얀마에 유니클로 점포를 여는 것

정치적 활동 참가로 인한 압력을 피해, 칭 하우 룬 씨는 2007년 조국 미얀마를 떠나 일본으로 건너와, 난민 인정을 받았습니다. 많은 시련을 극복하고 유니클로 점포에서 일한 지 2년. 지금은 일본인 스태프도 상담도 들어줄 만큼, 든든하고 적극적인 정사원입니다.

대학을 졸업하는 2007년에 정치적 활동에 참가한 것이 계기가 되어, 신변에 압력을 느끼고 일본에 오게 되었습니다. 난민 신청을 해서 난민 인정을 받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유니클로 '난민 인턴십' 모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응모해 이 아트레 가메이도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2년이나 됐네요. 지금은 유니클로 정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상의 전문용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뭘 해야 할지 몰라 정말 울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고민하고 있을 때 '같은 스태프로 일하는 동료다. 난민이라서 혼자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점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긍정적으로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유니클로 점포의 일하는 방식은 정해진 역할분담만 완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접객, 계산대, 디스플레이, 수선까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서로 서포트해주면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스태프가 들어오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전달합니다. 업무에 익숙해지고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되면 저도 기뻐요. 스태프도 기쁘고 고객도 좋아해 주십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지만, 당연히 실수할 때도 있지요. 주위에서 그걸 알아도 '그거 잘못됐어'라고 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웃음) 하지만 잘못된 그 스태프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알아차렸을 때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또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합니다. 결국, 책임은 알아차렸으면서도 전달하지 않은 사람에게 있지요. 알아차렸

을 때 곧바로 대응해야 합니다. 미루면 잊어버리거든요. 그 자리에서 곧바로 해야 합니다. 2년간 일하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알게 된 것 같아요.

난민 문제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요.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큰 공포입니다.

앞으로 일본에서 난민을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난민에게 '언어를 열심히 공부하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이 나라의 사회에 받아들여지려면 이 곳의 습관과 생활 스타일을 배워 흡수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인사는 '안녕하세요.'이지만, 미얀마에서는 '밥 먹었어?' 자기보다 나이가 위인 여성에게는 '○○언니' 라고 '언니' 를 붙입니다. 손아래면 그냥 이름을 부릅니다. 자기 부모와 동년배쯤인 사람에게는 친척이 아니라도 '삼촌' '이모' 라고 불러요. 일본에서 그렇게 부르면 큰일 나죠. (웃음) '네' 하고 대답할 때, 미얀마에서는 '호우 호우 호우' 하고 반복합니다. 이 곳에서는 '네'는 한 번만 하라고 그러죠. (웃음) 그런 습관 차이는 상대방이 말해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모국에 계신 엄마와는 거의 매일 메일을 주고받습니다. 국제 뉴스도 SNS 등으로 확인하고 있어요. 지금은 미얀마 총선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부모 형제를 떠나 지금은 일본에 혼자 살고 있지만, 언젠가 가족 모두가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어렵지만요.

장래에는 미얀마에 유니클로 가게를 내고 싶어요. 제 출신지는 겨울에 추워서 유니클로 옷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난민 아이들의 교육에서 옷은 정말 중요합니다

동아프리카 수단에서 태어났으나, 내전을 피해 당도한 난민촌에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소년병사로 살아남은 게르 두아니 씨는 난민으로 미국에 이주해 배우, 모델로 활약. 2014년에는 난민의 일상을 그린 영화 '뷰티풀 라이(The Good Lie)'에 출연했으며 2015년부터는 유엔 난민기구(UNHCR) 친선대사가 되었습니다. 활동의 일환으로 방문한 그를 인터뷰했습니다.

8, 9살 때 수단은 내전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까지 400킬로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고향에서 가족들과 도보로 국경을 넘어, 거기에서 또 450킬로를 더 간 난민촌으로 피난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생활이 4년을 넘었을 즈음, 이번에는 에티오피아에서 내전이 시작됐습니다. 전쟁의 혼란통 속에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맨발로 수단으로 걸어 돌아오려 했지만, 잠을 잘 곳도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거의 포기해갈 무렵에 군사 시설에 당도했습니다. 여기에는 물과 음식과 잘 장소도 있었지요. 그때는 소년 병사가 되는 것 이외에 달리 살아남을 길이 없었습니다.

총을 쥐고 전투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날들을 견딜 수 없어 14살 때 탈주했습니다. 에티오피아를 경유해 케냐의 난민캠프를 향해 도망쳤습니다. 난민으로서 미국에 가려고 마음먹은 것은 1994년, 16살 때였습니다.

제가 출연한 영화 '뷰티풀 라이' (2014년 미국 영화)는 수단 내전에서 부모와 생이별을 한 난민이 미국에서 살며 일할 때, 어떤 희비극을 낳는지를 그린 영화입니다. 감독과 프로듀서가 우리 난민 출신 배우의 경험을 취재해 그런 에피소드를 고스란히 담아준 것은 정말 고마울 따름입니다.

영화에서는, 받아들이는 나라의 곤혹과, 난민 측의 곤혹을 같은 무게로 그렸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생존에 급급했던 아프리카에서의 날들에 비하면 생소한 문화 속에서 사는 어려움 같은 건 전혀 대수롭지 않았습다. 새로운 곳에서 주어진 기회를 살리고 그저 배우면 됩니다. 다른 문화를 고민만 하기보다는 즐기는 자세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영화 속에, 수단에서 태어나 자란 남자들이 서로 손

을 잡고 걷는 것을 미국인이 기이한 눈으로 바라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서로를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끼리 손을 잡는다는 것은 수단에서는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그런 행동을 하면 다른 의미가 생깁니다. 손을 잡는 습관은 서로에게 경의를 표하는 뜻이므로 그런 습관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해를 산다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그 습관을 고치지 않고 고집을 부릴 필요도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고향에 있는 에티오피아에 비가 오면 제가 태어난 수단에는 미세물이 풍부한 물이 샘솟아요. 토지는 비옥하고 농작물은 뭐든 잘 자랍니다. 나일 강에서 낚시도 하고 수영도 했습니다. 내전만 없었더라면 정말 아름답고 풍요로운 고향입니다. 만약 다시 평화가 돌아온다면, 지금도 모국에 있는 부모 형제와 밭을 갈고 수확한 농작물을 함께 먹고 싶어요.

지금은 UNHCR의 친선대사로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힘을 쏟고 있는 것은 아이들의 문제, 특히 교육 문제입니다. 난민촌의 교육환경을 정비해 그들의 미래를 위해 공부하게 하고 싶어요.

자존감을 가지고 교육을 받기 위해서, 실은 옷이 아주 소중합니다. 제대로 된 옷이 없어서 학교에 못 간다, 가고 싶지 않다, 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옷에는 많은 역할이 있는데, 아이들의 교육에서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유니클로가 난민지원을 위해 옷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바로 얼마 전까지 몰랐습니다. 이 티셔츠도 실은 유니클로예요.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입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니클로의 리사이클 활동을 많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난민문제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세계 각지에서 분쟁과 박해로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는 난민과 국내 피난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수가 전 세계적으로 6,000만 명에 이르며, 앞으로 더욱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세계가 경험하지 못한 아주 심각하고 긴급한 사태입니다.

난민 중에는 가족을 잃은 사람, 집을 잃은 사람, 직업을 잃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공부를 계속할 수 없게 된 학생도 있습니다.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놓인 상황도 이해하지 못한 채 미래가 보이지 않는 환경에 내동댕이쳐진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유니클로를 전개하는 패스트 리테일링은, 옷을 만들고 옷을 판매하는 활동을 통해 ‘옷을 바꾸고, 상식을 바꾸고, 세계를 바꿔나간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글로벌 기업에는 난민 문제의 최신 상황을 파악하고, 기업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며 지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심각한 현황을 직시해, 난민에게 옷을 보내는 의류지원 ‘전 상품 리사이클 활동’을 확대, 세계 16개 나라와 지역 전 점포에서 유니클로 옷을 회수하는 프로젝트 ‘1000만 벌의 도움’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패스트 리테일링 그룹 종업원들도 입지 않게 된 의류 제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난민 기구(UHCHR)와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또한, 난민 문제를 교육 현장에서 전달하고 가르치는 계발활동도 더욱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난민의 자립을 지원하는 ‘난민 인턴십’도 계속하면서 난민과 함께 사는 환경 만들기에 더욱더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활동에 골은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난민이 단 한 명도 없는 세계가 실현되는 날이겠지요. 그 날까지, 앞으로도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을 마음속 깊이 바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입지 않는 유니클로 옷 옷장 안에 없으신가요?

여러분의 그 옷이 난민들에게 전달됩니다.
매장에서 건네 주시는 옷이 난민을 돕는 첫 걸음입니다.



●영업시간 내 언제든지 받고 있습니다 ●매장에 있는 스태프를 불러 전달해 주세요 ●유니클로에서 판매한 전 상품이 대상입니다 ●좋은 상태로 난민에게 보내기 위해, 세탁된 옷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옷 주머니 등에 들어 있었던 물건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구멍이나 얼룩으로 인해, 지원 의류로 적합하지 않아도 회수해서 연료용으로 마지막까지 활용하겠습니다

UNI
QLO



1000만 벌의

HELP

지금 세계 곳곳에는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내전으로 인해 고향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수 천만 명의 난민들을 위해

유니클로는 유엔난민기구(UNHCR)와 협력하여

1000만 벌의 옷을 전 세계의 난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입지 않는 유니클로 옷이 집에 있다면

매장으로 가져와 주세요

여러분이 전달해 주시는 한 벌의 옷에는 세계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난민들이 여러분의 도움으로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http://www.uniqlo.com/kr/csr/>
www.unhcr.org/